

회색빛 도화지에 녹색의 물감을 칠하다!

인간, 도시, 자연이 어울려 풍요로운 ‘목포 십자형 도시숲’

목포시가 조성한 녹색 네트워크

최근 기후변화, 저탄소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밀화된 도시는 아스팔트와 건물 벽에 둘러싸여 주변지역의 기온보다 더 높아지는 열섬화현상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며 각종 개발에 의해 도심 녹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시는 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생태적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녹색네트워크, 즉 생명이 깃들고 살아 숨 쉬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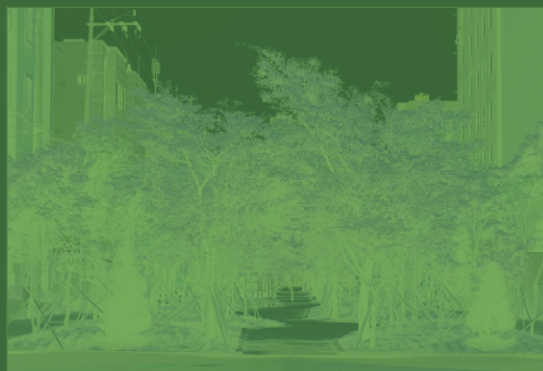
행사,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만남과 쇼핑의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중심상업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바닥분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주변에 위치한 토스트·주스·커피전문점은 매출이 증가했으며 상가 임대료가 비싸져 바닥분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쇼핑과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걷고 싶은 이상적인 보행환경이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모이게 함으로써 주변상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부의 건물신축이 잇따르고 있어 도심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성과로 인해 2009년 문화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산림청 주관 지자체 녹색도시(Green-city)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노후시설물과 쓰레기로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에서 사색을 하고 벤치와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출·퇴근시

간에도 도보로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목포십자형 도시숲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자연체험학습의 장이며 관광자원이다. 앞으로



도 목포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도시숲이 ‘사람이 함께 숨쉬는 명품 도시숲’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진호

jhkim3@korea.kr